

1/7/24

설교 제목: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시편 73 편

【아삽의 시】

- (시 73: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 73: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절관주** 시 94:18  
(시 73: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절관주** 시 37:1  
(시 73: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시 73: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절관주** 욥 21:9  
(시 73: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시 73:7) 살핌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시 73: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시 73: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절관주** 계 13:6  
(시 73: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시 73: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 73:12)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 73: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 73: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절관주** 욥 34:9, 욥 35:3  
(시 73: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시 73: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 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 73: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 73: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 73: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절관주** 시 78:65  
(시 73: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시 73: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 73: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 73: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 73: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27)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에는 모두 150 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이 쓴 것이 73 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삽이 쓴 것입니다.  
아삽은 50 편, 73 편부터 83 편까지 모두 12 편을 썼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150 편의 시들 중 49 편의 시들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본시는 아삽이 쓴 12 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로 믿음도 깊어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하 29:30)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삽 뿐만이 아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문제를 곳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은 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까지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악이 극도로 성행했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져 있었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나 재판관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혈안되어 악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으며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득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를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악인의 번성을 보고만 계시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의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의 악인들을 멸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를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유다가 패역했다고 하지만 어찌 유다보다 더 패역한 이방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도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망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윽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멸시키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본 시도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 먼저 자신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라고 운을 뗍니다.

(시 73: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찌된 것입니까?라는 의미입니다.

아삽은 바로 이어 하나님께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여 실족할 뻔하였다고 합니다.

(시 73: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 73: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악인들이 심판은 커녕 오히려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자신이 목격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열거합니다.

(시 73: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시 73: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 73: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시 73:7) 살찔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시 73: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시 73: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삽이 지켜보건대 악인들은 평생 동안 고난을 겪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지도 알았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했고 강포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하여 약한 자들을 압제했고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같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시 73: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시 73: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 73:12)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는 악인들에게 현혹된 추종자들이 악인들의 행동을 답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악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잘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 불법을 행합니다.

자신들이 악인들을 쫓아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고 만약 아신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삽의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의 배교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삽의 마음은 몹시 불편합니다.

악인은 불의한 삶을 사는데도 향통한 반면 자신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종일 재난을 당하는데 대한 갈등입니다.

(시 73: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 73: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손을 씻어'는 죄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고백입니다.

물론 아삽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해도 완전히 의롭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잘못을 범하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아삽을 계속 징벌하셨고 아삽은 이것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 12: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삽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 73: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시 73:1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 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지라도 이것을 주의 아들들에게 발설하지 않았다고, 만약 자신이 자신이 품은 의심을 발설했더라면 주의 아들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악행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아들들'은 악인들에 동조하지 않은 의로운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아삽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 73: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 73: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 73: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은 곧 그들에게 미끄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은 결국 그들을 패망하게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파멸에 던지시리니’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줄지에 파멸될 것입니다.

실제 욱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한동안 흥왕했던 압살롬은 요압과의 싸움에서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삼하 18: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삼하 18: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삼하 18: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삼하 18: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이자  
이방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 개의 밥이 되었습니다.

(왕하 9:30)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왕하 9:31)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왕하 9: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왕하 9:33)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왕하 9:34)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왕하 9:35)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왕하 9:36)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소유한 유다의 왕통을 끊으려 했던 아달라도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칼에 의해 응징되었습니다.

(왕하 11: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하 11:13)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왕하 11:14)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왕하 11: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왕하 11:16)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와같이 악행을 일삼으면서 한 때 형통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파멸을 면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그들도 사후에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다만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으로 실체가 아닙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것을 자책하고 회개합니다.

(시 73:21)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찢렸나이다

(시 73: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 73:23)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 73:24)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 73: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 73: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27)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갈등했던 아삽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아삽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아삽의 의심 절망 갈등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17 절에 있습니다.

(시 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성소는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신앙적인 갈등을 하곤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갈등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삽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합 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합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음 속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풀어져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